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정식 출판 밖에 숨은 지식, 회색 문헌(Grey Literature)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9788/>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논문을 쓰거나 과제를 준비할 때 우리는 보통 학술지와 책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가 낸 연구 보고서, 기업이 공개한 기술 문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서점이나 학술지 목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문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이 바로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입니다. 회색 문헌이란 쉽게 말해 상업 출판사나 정식 학술 출판의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정부, 대학, 기업, 시민단체 같은 기관이 직접 만들어 내놓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내용은 알차지만 찾기 어렵고, 품질도 제각각이라 도서관과 연구자에게 늘 까다로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회색 문헌이라는 말이 생겨난 배경과 정의부터 대표적인 자료 종류, 연구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그리고 찾고 보존하기 어려운 문제와 해결 노력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ornell·Monash·Waikato 대학 도서관 안내를 참고한 설명도식. 회색 문헌은 발행·유통 경로에 관한 분류이며, 동료심사 여부·품질·재사용 권한은 개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Cornell 대학 도서관 · Monash 대학 도서관 · Waikato